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통합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에 맞서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서,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진보가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대의 속에 진행돼 온 진보대통합이 지금 좌초 직전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대통합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와 지배자들의 각종 공격도 영향을 미쳤다.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권단일정당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태도도 걸림돌이 됐다. 참여당과의 통합 거부권을 진보신당에 준 합의문마저 거부하며 진보의 단결 염원을 외면한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도 유감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문제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진보대통합'의 이름 아래 친자본가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것이 진보대통합을 위기와 실패로 몰아 온 핵심 원인이다.**

진보대통합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감동'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냉소와 반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정부' 10년의 어두운 기억을 가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 정부를 계승한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반발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85호 크레인에서 김주익 열사가 1백29일을 싸우다 목을 매 … 게 만들었던 것도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했던 바로 그때였다.”(‘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금속노동자 선언’)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를 계속해 왔다. 특히 9월초 진보신당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의사를 거듭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것은 사실상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 합의문을 부결하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진보대분열’을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참여당이 민주노동당보다 규모도 작고, 게다가 5·31 합의문을 승인하면서 좌경화했으니 그들과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여당과 통합하더라도 노동조합 기반이 대거 이탈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벌어진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캠페인. 그동안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왔다.

당의 규모 등을 볼 때 진보정당이 통합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합이 선거 득표에 일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당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좌경화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5.31]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은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당의 강령과 정책도 여전히 ‘FTA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해의 파병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 ‘고용유연성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월 8일 참여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논의한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 초안이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전반적으로 ‘반기업정서’가 드러”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파견제 철폐”나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같은 표현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체성 훼손

따라서, **이런 참여당과 통합하면 그것을 지렛대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정체성은 훼손될 것이다.** 이미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급진적 성격의 강령을 후퇴시켰다. 또, 이정희 대표는 조중동과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진보의 전통을 거슬러 얼마전 <동아일보>와 인터뷰했고, 거기서 “FTA는 어떤 나라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런 후퇴는 진보정당의 기반인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투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낳는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8월 20일 ‘희망시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참여당을 고려해서 ‘정리하고 철회’가 아니라 ‘한진 문제 평화적 해결’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주요노동자 투쟁들에서 거둬 부정적 작용을 했던 것이다. ‘희망의 버스’가 보여 주듯이 기존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에 대한 의지는 결코 낮지 않은데 말이다.

물론 진보정당 밖의 개혁염원 대중을 견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촛불시위를 통해 급진화한 참여당 평당원·지지자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보적 대안을 분명히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을 매듭짓겠다며, 수임기관 운영위원회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9월 25일 당대회 개최를 강행하려 한다. 이미 이를 위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까지 받았다. ‘진보신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은 어차피 실패했으니, 선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으로 진보대통합을 성공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진보신당이 빠진 상태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를 ‘진보대통합’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일단 실패한 지금, 이런 시도는 진보 지지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긴커녕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시도는 진보신당 ‘통합파’가 진보대통합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진보대통합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조차 ‘좌클릭’ 시늉을 하는 요즘,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은 참여당과의 통합에나 매달리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독립적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의 공백

을 안철수 같은 인사들이 메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을 향해 오겠다는 진보 세력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투쟁 속에서 진보의 단결을 추구해야 옳다. 진보정당다운 독자적 정책과 요구들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며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게 옳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개최에 반대한다. 이런 반대를 거슬러 당대회가 개최된다면, 진보의 분열과 정체성 훼손을 낳고 노동자 단결과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

이렇게 합시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학생회, 각종 단체 차원에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인 장소에 부착하고, 온라인에도 퍼 나릅시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의 대표자들이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합시다.
- 자신이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의원에게 9월 25일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도록 촉구합시다.
- 각종 진보 언론들에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기사나 독자편지 등을 보내 봅시다.
-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 각종 기사들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공간에 퍼나르고 알립니다.
- 그 외에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저지합시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010-7726-2792 김재현)

노동자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돼 왔다. 이미 8월 말까지 민주노동당 당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무려 2천8백72명이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서명과 선언에 동참했다.

8월 19일 열렸던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4차 회의장 앞에서는 금속노조 김형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쌍용차·기륭전자·현대차 노동자들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여당 통합 반대 1차 금속 노동자 선언’에 참가한 6백18명을 대표했다. 같은 날 건설노동자 1백58명도 ‘올바른 통합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하는 건설노동자 선언’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농협노조 강원본부와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서도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선언이 발표됐다. 8월 24일에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교수·연구자 1백85명이, 26일에는 보건의료인 1백2명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대의원 일동이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레프트21>에 실렸던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축약해서 싣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진보 양당의 통합이 우선입니다”

참여당 문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입니다. ‘참여당’이 잘못된 건 있지만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쉽게 과거를 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민영화 추진했고, 비정규직화 추진했고, 양극화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 번의 의사표현으로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의 상처가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다 잊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는데 그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몸이 따라가겠습니까.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참여당과의 통합을 결단코 반대한다”

나는 통합 진보 정당에 참여당이 참가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사만 무려 23명이었다. 노동자 하중근이 맞아 죽었고, 농민 홍덕표가 맞아 죽었다. 고(故) 김선일까지 합하면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참여당이 ‘진보’인가?

요즘 유시민 대표가 이곳저곳 ‘사과’하러 다닌다고 들었다. 병 주고 약 주는 짓거리다. 정말로 유시민 대표가 ‘사과’하고자 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소리를 중단해야 한다.

정용건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노조 위원장

“노동자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동 진영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사실 [유시민은] 심상정이 사퇴했는데도 경기가사도 당선이 안 됐고, 김해율에도 알박기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살아날 길이 그것 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적 태도에 누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미 FTA 관련해서도 사과라고 하지만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성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참여당을 거론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보정당 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우리 진보진영의 목표에서 그 범주 안에 국민참여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이러면 용서가 될 것처럼 여지를 남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내가 죽인

건 잘못됐고 정말 반성한다 그러면 정말 용서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보진영 통합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참여당 문제까지 겹쳐져서 거론되면 진보진영 내부에 혼란이 초래되고 그 혼란은 거꾸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참여당과의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참여당이라고 하는 당은 분명히 우리와 결이 다릅니다. 참여당과의 통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을 했던 제 처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우리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잘못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참여당과 통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됩니다”

참여당은 노동자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 내에 분포돼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동안 지향해 왔던 것도 그렇습니다. 참여당은 한나라당처럼 보수정당이 아니지만, 전혀 변혁적이지 않고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진 제공 허세욱 열사 추모사업회

민주노동당과 참여당 사이에는 허세욱 열사의 죽음 같은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

정홍근 민주버스 전북고속지회 정의부장

“참여당은 우리 투쟁을 가로막을 것이다”

참여당은 진보정당들이 맞서 투쟁했던 지난 정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정당 아닌가. 그들이 말로 반성했다고 우리와 함께 투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투쟁을 못하게 하려 할 것이다.

고동민 쌍용차지부 재정부장 (해고자)

“참여당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해 참여당의 공만 말하고, 과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이고, 이들은 우리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참여당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파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으로 덩치를 키우면,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 단체를 이룰 수 있고 그해야 실질적 진보와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덧셈만 있을뿐, 정작 참여당의 성격이 진정한 진보와 개혁에 부합하는가라는 물음이 빠져 있다.

민주노동당 일부 지도자들은 참여당이 ‘당원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평당원 중에 노동자가 많다’는 점만 내세우지 참여당의 진정한 성격을 말하지는 않는다. 유시민도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며 물타기를 한다.

그러나 **참여당의 진정한 성격을 규명하려면 우리는 참여당의 계급 기반과 강령(이데올로기), 실천을 함께 봐야 한**

다. 먼저 참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고위관료 출신들이 주도해 만든 당이다.

당대표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이고, 고문 이재정은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냈고 기업주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전력도 있다. 참여당이 각종 선거에 출마시켰던 후보들 속에도 전현직 기업 고위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

참여당의 돈도 진보정당처럼 노동자들의 당비와 지지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재 참여당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당비보다 ‘정치 자금 펀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확연한 차이

9월 8일 참여당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강령정책본부위원회 보고를 보면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계급 기반 차이

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논의 중이던 강령안에 대해 “재벌 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일부 용어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드러나는 것 역시 편향적 태도”이며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 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참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자본가들의 주요 정당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친자본가당이다. 그래서 참여당은 “뚜렷한 계급성을 ‘진보의 진입장벽’이라며 부담으로 여긴다. 이는 노동계급의 대중성에 기반한 민주노총과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 유시민도 “참여당은 국민

의례를 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중의례를 한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다”고 했다.

참여당이 ‘반성’과 ‘성찰’을 하며 변했다는 말도 진실이 아니다. 참여당은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는 강령을 갖고 있고, 노무현이 했던 한미FTA 협상 자체는 여전히 옳았다고 주장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파병을 강행했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참여당이 제주 해군기지에 일관되게 반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진보정당과 참여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속에는 민주노동당 허세욱 열사 등 민주정부가 10년간 죽여 간 열사들의 피까지 흐르고 있다. 참여당과 한두 켠에

서 제휴는 가능할지 몰라도 통합의 대상은 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이념도, 가치도, 정책도, 문화도, 방식도 다른 정당들이 하나로 합치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참여당과의 통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의 말처럼 애초 진보대통합의 목적은 “대중조직이 하나로 더 크게 단결해 힘차게 투쟁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단결하고 투쟁할 때 실질적 진보와 개혁이 가능한 것이지,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할 친자본가당과 통합하면서 국회 의석만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